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李 康 濟 *

- I. 序 論
- II. 인플레이션과 失業
- III. 通貨와 失業
- IV. 結 論

I. 序 論

貨幣數量說에 대한 反論은 다음 세가지로 集約되어 왔다. 즉, 첫째는 貨幣當局은 貨幣供給을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反論은 멀리 19세기初의 通貨主義와 銀行主義의 論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의 反論은 貨幣當局이 비록 貨幣供給을 [콘트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經濟變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見解이다. 이것은 [케인즈]의 流動性 陷穽 < liquidity trap > 說에 기인하는 이론이다.

세째는 貨幣政策의 變化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貨幣와 類似資産의 變化는 財貨와 用役의 支出이라고 하는 [모델]의 實物的인 面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것은 단순화된 [케인즈]의 一般均衡 [모델]에서 인용된 貯蓄 및 投資函數의 완전한 利子非彈力性이 實物部門에 대한 貨幣의 영향을 排除한다고 하는 [포스트 케인지안]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貨幣數量說은 끝없는 論爭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貨幣供給이 [인플레이션], 失

* 산업연구소 연구원,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教授 (經濟學 博士)

業 및 經濟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思想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에 注目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과거 數世紀에 걸친 貨幣論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通貨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失業 등에 관한 研究는 많은 業績을 남기고 있으나, 通貨와 失業이라고이라고 하는 相關關係에 대해서는 뚜렷한 研究가 없다.

그러므로 本 論文은 通貨와 失業의 函數關係를 美國의 1900年부터 1986년까지의 通貨와 失業의 關係를 實證적으로 分析함으로써 하나의 [모델] 定立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分析用具 < analysis apparatus >는 [필립스]의 分析方法을 채용하였다.

II. 「인플레이션」과 失業

일반적으로 [케인즈]는 貨幣數量說 方程式을 부정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윗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MV 와 PT 의 等式에 있어서 流通速度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보는 것을 否定하고 V 는 오히려 高度로 變化하기 쉬운 要因이라고 보는 점이 다르다.

즉, [케인즈]는 貨幣量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貨幣의 流通速度는 저하하지만 貨幣數量 方程式의 右邊에 있는 物價나 產出量에는 變化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貨幣量의 증가 없이 이 方程式의 右邊의 PT , 또는 所得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流通速度가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流通速度는 항상 變化하는 요인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安定的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換言하면, 流通速度는 貨幣量이나 所得의 그 어느 한쪽의 變化에도 反應하여 變化하는 것이 때문에 貨幣量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케인즈]는 貨幣量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의 投資와 政府의 支出이 더 問題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케인즈]의 見解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상의 장기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貨幣發行의 결과이거나 또는 貨幣와 어떤 관계가 적어도 항상 작용한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¹⁾

1) Harry G. Johnson, *Inflation and the monetarist Controversy*,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2, Ch. 2.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좀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貨幣價格의 일반적인 수준은 名目貨幣量의 需要와 供給의 作用의 결과이거나 또는 적어도 이와 관련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것을 知的으로 표현한 것이 貨幣數量說이다.

貨幣와 物價는 일정한 관계가 항상 유지되고 있다는 단순한 方程式의 기본이유는 貨幣가 X% 변동하는 경우, 物價도 X%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반드시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美國에 있어서 實質 G.N.P.에 대한 貨幣量의 比率는 價格水準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²⁾

그러면 貨幣的 要因에 의한 [인플레이션]하에서의 失業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인플레이션]과 失業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은 第二次大戰 이후 이미 두가지 단계를 거쳤으며, 지금은 제 3의 단계에 있다.³⁾

第 1 段階는 失業과 賃金率과의 사이에 있어서 安定的인 負의 關係 <賃金の 低落에 수반하여 높은 失業水準이 발생하고, 賃金の 上昇과 더불어 失業水準이 低下된다고 하는 關係>가 존재한다고 하는 [필립스]의 가설단계이다. 그리고 長期的인 生産性的의 증가를 가정하여, 賃金費用을 상회하는 價格의 초과분은 거의 일정한 [마-크 업] 要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봄으로써, 賃金の 變化와 物價의 變化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필립스]의 가설은 圖表 1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賃金과 失業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직접 失業과 物價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 關係는 일반적으로 政策當局者에 있어서 [트레이드 오프] <trade off>을 나타내는 因果關係라고 생각 할 수 있다. 政府當局者는 點 U_L 와 같은 낮은 失業目標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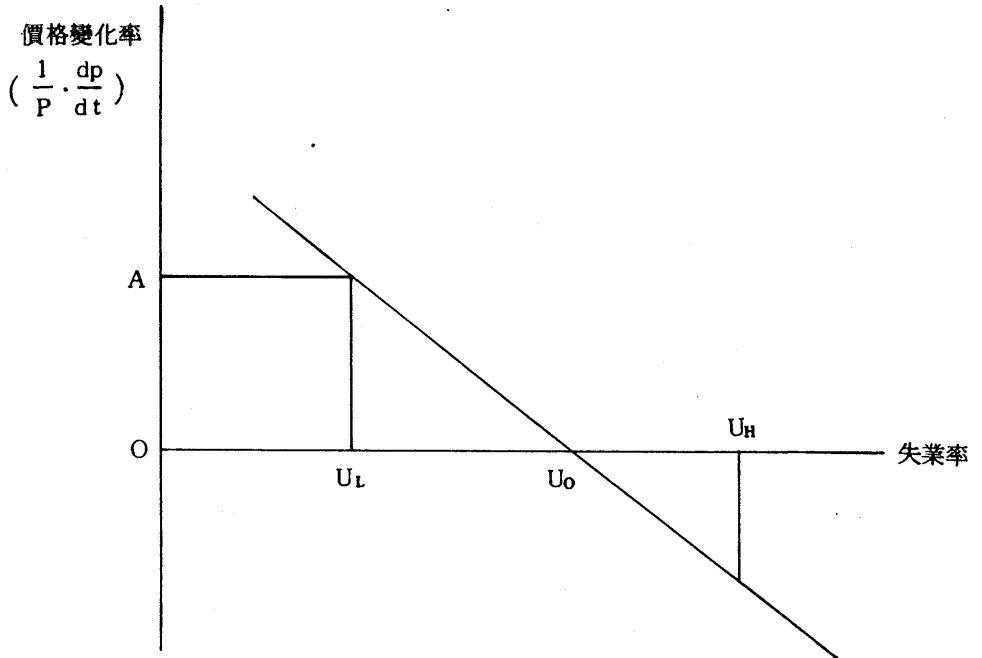
이러한 경우, 그들은 點 A만큼의 物價上昇을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때에 U_L 의 失業率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名目的 總需要水準을 발생케 하는 政策手段 <貨幣的 또는 財政的>의 선택이 문제로 남게 되지만,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失業과 [인플레이션]

2) William Poole, *Money and the econom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Inc., 1978, Ch. 2.

3) Milton Friedman, "Inflation and unemployment," *Occasional Paper No. 51*,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1977, Lecture 1.

第 1 圖表

단순한 [필립스] 曲線



의 組合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

한편 政府當局者는 낮은 物價上昇率이나 物價의 低落을 目標로 선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들은 物價上昇率 0에 대한 U_0 , 物價의 低落에 대해서는 U_H 라고 하는 높은 失業率을 甘受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와 같은 가설에 있어서 不幸한 것은, 끊임없는 實證의 연구의 결과가 이 가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4) 따라서 「 필립스 」 曲線이 보여준 物價와 失業의 關係의 實證인 推計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一定한 失業水準과 供存하는 物價上昇率은 一定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모든 나라에 있어서 政府가 完全雇傭의 달성을 추구하였던 第二次大戰후의 기간에 있어서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物價上昇率은 時間의 경과와 더불어 上昇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4) *Ibid.*, Lect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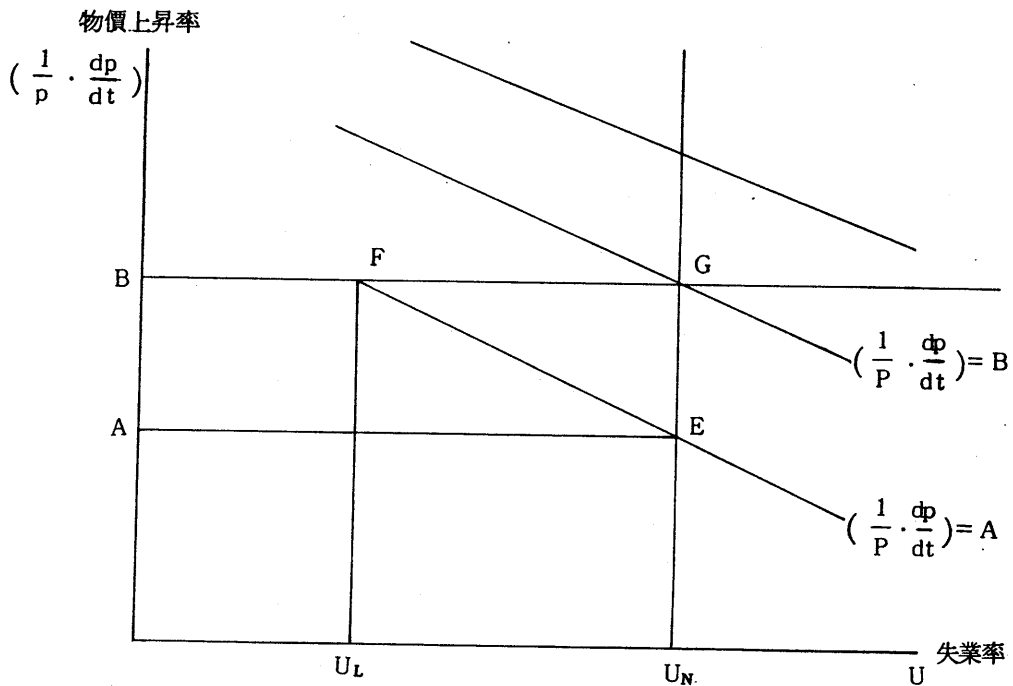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換言하면, 처음에는 낮은 失業水準과 共存하고 있던 物價上昇率이 높은 失業水準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失業率이 동시에 共存한다고 하는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用語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第2段階는 自然失業率假說이다. 이것을 圖表2에 의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第2圖表

期待조정된 「필립스」 曲線



圖의 各曲線은 第1圖表와 같은 「필립스」 曲線이며, 이것은 價格變化率이 平均이 아닌 平均價格變化率이라고 定義된 각각의 豫想된 物價上昇率에 대해서 各 曲線이 존재한다고 하는 점이 다른 것이다.

點 E에서 출발하면, 어떤 이유에서 物價上昇率이 A로부터 B로 이동해서 그곳에 정착한다고 가정하자. 이때에 처음에는 失業이 A의 豫想物價上昇率 $\langle \frac{1}{P} \cdot \frac{dp}{dt} \rangle$ 에 대응하는 曲線에 따라 이동하고, 點 F의 U_L 로 감소 할 것이다.

豫想이 조정됨에 따라서 단기곡선은 上方方向으로 변동하고, 마침내는 B라고 하는 豫想物價上昇率에 대응하는 曲線에 이르게 된다. 이에 수반하여 失業은 서서히 F로부터 G로 이동

하여 간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諸問題를 提起하는데 충분하다.

즉, 問題는 「인플레이션」 그 自體가 아니라 豫想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인플레이션」과 失業사이에는 아무런 安定的인 「트레이드 오프」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經濟의 실질적인 諸要因과 조화하여 自然失業率 < U_N >이 존재 한다는 것이며, 또한 失業은 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만 이 水準以下가 유지되는데 불과 하다는 것이다.

自然失業率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드 만」에 의해서 제창된 「빅셀」의 自然利率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표현이지만, 그것은 일정한 수치가 아니라 勞動市場의 유효성, 경쟁 또는 특점의 정도, 각종 작업에서 일하는데에 대한 장애, 혹은 그의 원활성 등의 실질적 次要인 < 貨幣的 諸要因에 대립하는 것 >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서의 自然失業率은 두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명백하게 上昇을 계속하고 있다. 첫째는 婦女子, 「틴 에이지」 및 「파드 타임」의 노동자가 총노동력에 占하는 그의 비중이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集團의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비하여 고용의 이동성이 크고, 勞動市場에의 출입이 많으며 직장을 자주 바꾼다. 그 결과, 그들은 보다 높은 失業率을 갖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失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失業保險이나 기타의 원조가 한층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利用可能케 되었으며, 그 支給期間과 支給金額도 한층 더 관대해 졌다. 따라서 직장을 잃은 노동자가 다른 일을 발견 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이 매우 적어졌으며,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의 선택도 더 한층 선택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自然失業率의 決定要因은 미국 및 기타의 나라에 있어서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공표된 失業의 수치가 갖는 의미와 自然失業率과의 관계는 더욱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經濟에 있어서 고용상태와 효율, 또는 生産性的 水準과의 관계는 公共政策에 있어서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기록상의 높은 수준의 失業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의 증거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低水準의 失業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임금이 실제보다도 높아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관념에 의하여 노동자가 余暇에 비하여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그의 가치를 보다 낮게 평가해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同一한 自然失業率이 相異한 경제에 대응하는 例로서, 1950년부터 70년에 걸쳐서 日本과 英國은 다 같이 低位의 平均失業率을 경험 하였지만, 日本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으나 英國은 침체에 빠졌었다.

自然失業率의 假說, <「인플레이션」 加速假說>, 또는 期待調整「필립스」 曲線假說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되는 이러한 假說은 지금까지 결코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容認되어 왔다.

소수의 학자들은 아직도 「필립스」에 집착하고 있지만 대개는 그의 短期曲線과 長期曲線과의 區別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곡선을 더 고려하고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인플레이션」과 失業과의 사이에 安定的관계 대신에, 「인플레이션」의 加速度와 失業과의 사이의 안정적 관계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많은 經濟的 研究가 이러한 第2段階의 여러가지 側面, 이 過程의 動態, 期待의 形成, 가능한 경우에는 實質的 諸量에 대해서 豫測 可能한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體系있는 政策 등의 究明에 힘쓰고 있다.

第3段階는 최근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의 上昇率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失業은 高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는 方向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 한다.

이때의 分析은 經濟的 경험과 政治的 展開와의 相互依存性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며, 적어도 몇가지 政治的 現象은 獨立變數 <計量經濟學上的 用語로서의 外生變數>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經濟的 현상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 <内生變數>으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第3의 主要한 發展이라고 할 수 있는 經濟分析의 政治行動의 적용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失業과의 사이에 出現되어 있는 正의 關係는 政府의 政策當局者가 많은 關心을 갖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例로서 과거 英國의 어떤 首相은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우리들은 여러 국민이 노력하면 不況으로부터 脫出 할 수 있고, 減稅와 政府支出의 擴大에

5) Robert J. Gordon, "The demand and Supply of inf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December, 1975), pp. 807-836.

의해서 雇傭의 증가가 可能하다고 생각하는데에 익숙하여 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이러한 일은 存在하지 않으며, 과거에 있어서도 大規模의 「인플레이션」經濟에 있어서만 그러했으며, 그 결과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층 더 높은 失業水準을 발생 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과거 20年間の 歷史이다.”

이와 똑 같이 「카나다」에 있어서도 政府의 經濟白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北美에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失業率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들은 第2次大戰後期를 통해서 거의 모든 西歐의 政府들이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주목되는 叙述인 것이다.

이에 대한 약간의 증거로서 圖表 3, 4, 5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도표에는 과거 20년간 비교적 안정되었던 工業化된 7개국에 있어서의 物價上昇率과 失業率이 표시되어 있다

第3表의 5개년 平均에 의하면 처음 5개년간 <1960年과 1961~65年>에는 7개국중 5개국, 2번째와 5개년간 <1961~65年과 1966~70年>에는 7개국중 4개국만, 그리고 최종 2개의 5개년 <1966~70年과 1971~75年>에는 7개국중 1개국만이 物價上昇率과 失業率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필립스」曲線과 똑 같은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第3表 인플레이션과 失業 < 5개년의 平均値 >

	DP = 年間物價變化率																U = 失業率	
	佛		獨		伊		日		瑞典		英		美		不加重平均			
	DP	U	DP	U	DP	U	DP	U	DP	U	DP	U	DP	U	DP	U		
1956 ~ 60	5.6	1.1	1.8	2.9	1.9	6.7	1.9	1.4	3.7	1.9	2.6	1.5	2.0	5.2	2.8	3.0		
1961 ~ 65	3.7	1.2	2.8	0.7	4.9	3.1	6.2	0.9	3.6	1.2	3.5	1.6	1.3	5.5	3.7	2.0		
1966 ~ 70	4.4	1.7	2.4	1.2	3.0	3.5	5.4	1.1	4.6	1.6	4.6	2.1	4.2	3.9	4.1	2.2		
1971 ~ 75	8.8	2.5	6.1	2.1	11.3	3.5	11.4	1.4	7.9	1.8	13.0	3.2	6.7	6.1	9.3	2.9		

註: DP는 1955 ~ 60, 1960 ~ 65, 1965 ~ 70, 1970 ~ 79年の 消費者物價의 年間變化率. U는 上記 各 5개年間の 平均失業率

資料: M. Friedman, Inflation and Unemployment, Occasional Paper No. 51에서 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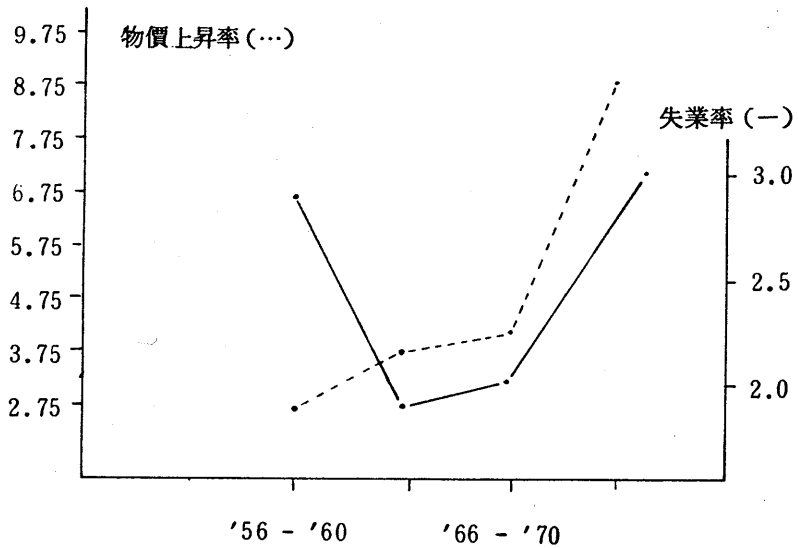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그리고 유일하게 例外인 「이태리」에 있어서도 실제로 완전한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즉, 1971년부터 75년까지에는 이것보다 먼저의 5개년 보다는 物價上昇率은 3배이상인데도 失業率은 다소 低下된 것 뿐이다. 그러나 1973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과 失業은 다같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第4圖表에 기록된 7개국의 平均은 더욱 明白하게 負의 曲線을 갖는 단순한 「필립스」曲線으로부터 正의 曲線으로 轉換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의 2개의 5개년간에는 2개의 曲線이 反對方向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같은 方向으로 이동하고 있다.

第4圖表

物價上昇率과 失業率



註: 7개국의 不加重平均 < 每 5개년간 >

資料: M. Friedman, Ibid.

第5圖表은 약간 복잡하지만 제3圖表와 대략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의 期間에는 物價와 失業의 관계는 매우 多樣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태리에 있어서와 같이 本質的으로 兩者間에는 아무런 一定한 關係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反面에, 英國과 美國에 있어서는 대단히 明白하게 負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產 業 研 究

그러나 近年에 와서는 日本의 특수한 制度的 환경⁶⁾ 때문에 失業의 增加率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인플레이션」上昇率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있지만, 佛, 美, 英, 西獨의 모든 나라들은 명백하게 「인플레이션」과 失業의 兩者가 다같이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단지, 瑞典과 伊國만이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따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資料는 하나의 示唆에 불과하다. 특히 石油危機가 物價를 上昇시키는데 크게 작용하고 生産에 타격을 입혀서 失業이 증가하게 된 요인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시사를 받는 것은 物價의 上昇과 失業의 增加는 각 나라들의 個別原因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호연관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 경향과는 달리 「필립스」는 전혀 逆의 方向으로서 分析을 시작 하였다. 그의 曲線原型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雇傭水準을 賃金變化率과 從屬變數로 취급 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어떤 財貨나 用役에 대한 수요가 그의 공급에 비교하여 큰 경우에는 그의 價格은 上昇하고, 초과수요의 크기에 대응하여 가격의 상승은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原理가 勞動用役의 價格인 貨幣賃金率의 變化를 결정하는 要因의 하나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⁷⁾

「필립스」의 分析은 第6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靜態的 需給曲線을 그리고 있다. 需要와 供給이 교차하는 點 0에서 賃金率 W_0 는 勞動雇傭量 E_0 로서 勞動需給量은 같아지고 따라서 市場은 均衡을 이루게 된다. 물론 이때의 失業은 零이다.

換言하면, 存在하는 失業은 마찰적 또는 과도적 失業者와 같은 것이며, 혹은 「빅셀」에 의해서 사용된 用語 즉, 自然失業인 것이다. 「필립스」에 의하면 이 點에서는 賃金を 上昇시키는 上昇壓力은 存在하지 않는다.

다른 點 F를 고찰하여 보면, 여기에서는 勞動需要量이 供給量을 上廻하고 있다. 즉, 초과수요에 있어서 W_F 의 賃金은 그의 均衡수준 보다도 낮고, 따라서 賃金上昇壓力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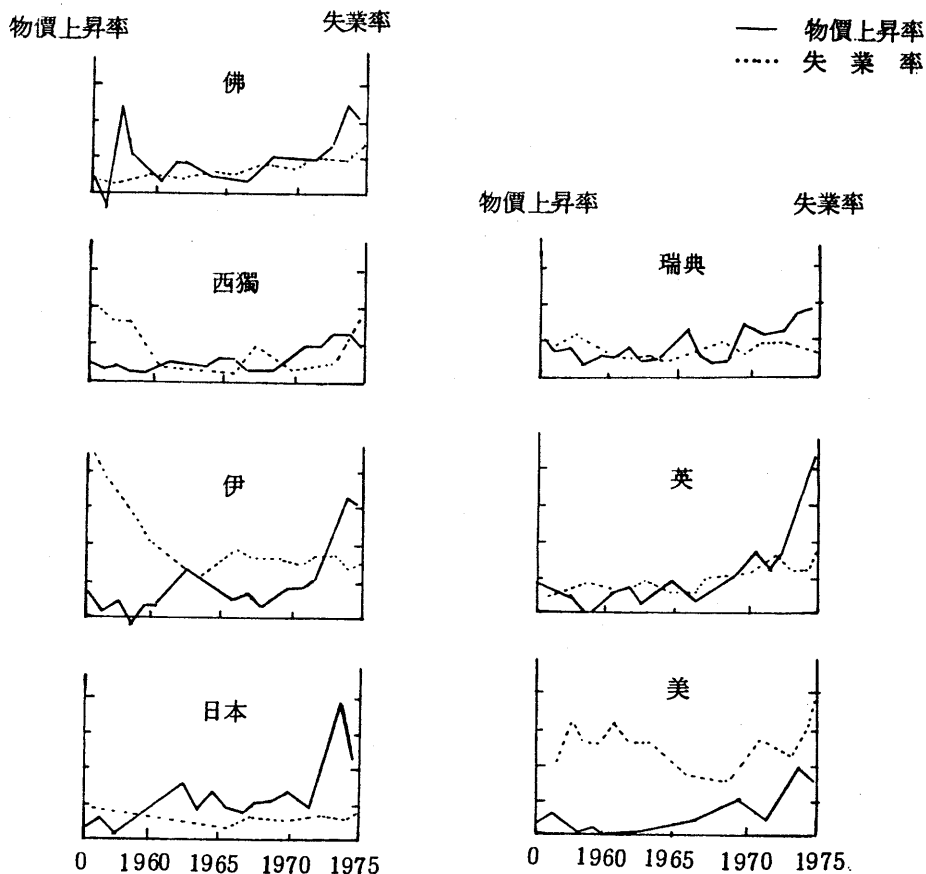
6) 이것은 日本의 終身雇傭制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思料됨.

7) A.W. Phillips,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a*, Nov. 1958, pp. 283-299.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第 5 圖表

인플레이션과 失業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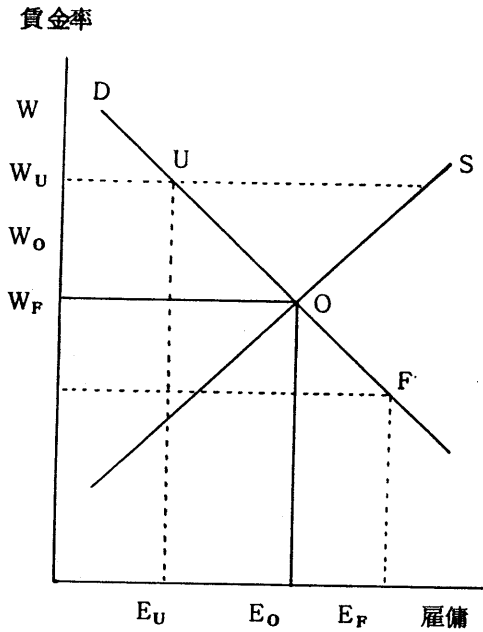
註：1956 ~ 75 年間の 7 개국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과 失業率의 年率

資料：M. Friedman,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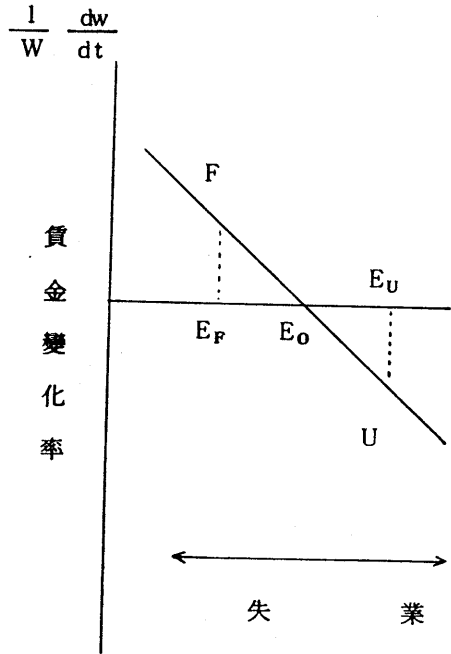
點 U에서는 失業이 발생하고, W_U 는 균형임금을 上廻하고 있으며, 따라서 賃金의 下向壓力이 存在하고 있다. 勞動의 需要量과 供給量과의 差는 크면 클 수록 賃金을 變動시키는 壓力은 크고 따라서 賃金은 한층 더 급속하게 上昇 또는 下落하게 될 것이다.

第 7 圖表는 「필립스」가 失業水準이 賃金의 變化率에 따라서 變化한다고 하는 第 6 圖表의 分析을 더욱 精밀하게 變型시킨 것이다. 즉, 點 0과 對應하고 있다. 이때에 失業은 自然失業率의 상태이며 賃金은 安定的이다. 點 F는 超完全雇傭에 對應하고 있으며, 賃金은 上昇

第 6 圖表



第 7 圖表



註 : E_O 는 自然失業率
 F 는 自然失業率以下の 失業率 또는 超完全雇傭
 U 는 自然失業率以上

추세에 있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點 U 는 失業의 存在에 對應하고 있으며 下落 추세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필립스」는 賃金變化를 문제시 하면서 失業의 變化를 論하고 있으며, 賃金은 총비용에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要因이므로, 따라서 賃金과 物價는 併行的行動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펍 설득력이 있는 것 같으나 매우 틀린 分析이다. 그것이 誤謬라고 하는 것은 勞動의 需給이 名目賃金率의 函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經濟學者는 「아담 스미드」 이래 현재까지 名目賃金이 아니라 實質賃金을 주장하여 왔기 때문이다.⁸⁾

이것을 第8圖表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만일 실질임금율을 $\frac{W}{P}$ 라고 하면, 이 圖表에서는 名目賃金이나 物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 할 수가 없다. 즉, 交叉點 O 을 생각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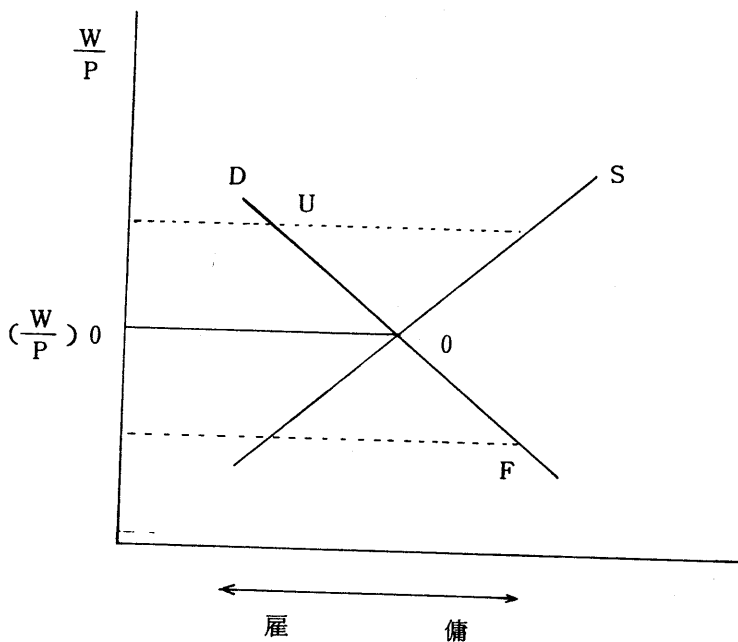
8) Friedman, *Ibid.*, Lecture 2.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보자. 이 雇傭水準下에서는 實質賃金에 대해서 上昇壓力이나 下落壓力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임금은 W와 P가 각각 一定한 點에 있는 경우라 해도 不變일 수 있으며, 또한 W와 P가 각각 年間 10%의 비율로 增加 또는 下落하는 경우에도 그의 變化率이 同一한 경우에는 實質賃金은 역시 不變이라는 것이다.

第 8 圖表



註: P는 目名價格

W는 目名賃金

그러면 어찌하여 「필립스」는 이와 같이 名目賃金과 實質賃金을 혼돈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케인즈」革命에 의한 일반적인 知的風土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⁹⁾

즉, 「케인즈」革命의 本質的要素는 產出에 비하여 物價는 高度로 硬直的이라고 보며, 需要의 變化는 거의 모두 產出의 變化에 의하여 흡수되어 物價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價格水準은 제도적 條件이라고 보는 「케인즈」의 생각을 가지고, 「필립스」는 名目賃金의 變化를 實質賃金의 變化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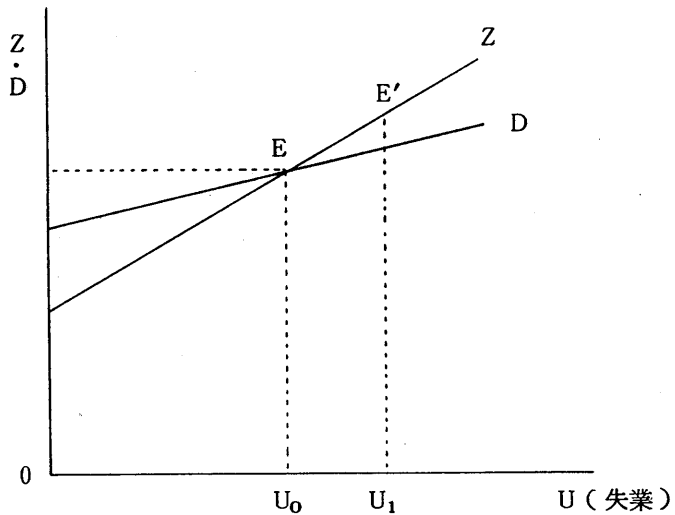
9) Friedman, *Ibid.*, Lecture 2.

Ⅲ. 通貨와 失業

「케인즈」의 功過는 두가지로 要約된다. 功은 失業 <非自發的失業> 문제에 대한 공헌이고, 過는 通貨增發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케인즈」 罪惡이라고 까지 말하는 學者도 있는가 하면, 이미 古典的理論이 되어버린 「케인즈」 理論이지만 慢性化되어가는 오늘의 失業에 대한 처방에는 항상 「케인즈」 理論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케인즈」는 失業에 대한 해결方案으로 有效需要의 創造 <creation of effective demand>를 제시 하였다. 즉, 圖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失業의 발생을 총수요 D가 총공급 Z를 따르지 못하는 데에서 存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요 <投資需要와 消費需要>를 총공급點까지 증대 시켜야 失業은 해결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U_0 는 총공급과 총수요가 교차하는點 E에서 이루어지는 完全雇傭이며, 이때에 만일 총공급 Z가 E'點으로 이동하면 U_1 만큼의 失業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失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D를 E'와 교차하는點까지 이동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有效需要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政府의 財政支出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第9圖表



註: U_0 는 完全雇傭
 U_1 은 失 業

Z는 總公 給
D는 總수 요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이러한 財政支出의 증대에는 通貨增發要因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케인즈」이론에서는 배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考察하여 볼 때 失業은 「인플레이션」 및 通貨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正 또는 負의 相關關係가 성립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과 失業은 「필립스」의 分析에 의해서 이미 前節에서 고찰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를 分析하고자 한다.

먼저 通貨와 失業에 대한 相關關係를 實證的으로 分析하기 위하여 미국의 과거 1900 년부터 1986 년까지의 通貨增加率과 失業率을 檢證하기로 한다.

미국의 資料를 중심으로 분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의 실업률은 1969년 이래 일률적으로 3~4%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한 실업을 분석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의 통화 및 실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큰 효과를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失業率이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실업을 통계산출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I.L.O.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주일간에 1시간의 노동만 있어도 이것을 취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¹⁰⁾

換言하면, 한국사회에서는 學生들의 「파-트 타임」노동이나 일부분의 시간제 노동 以外에는 시간제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저임금으로 인하여 1주일에 1시간 노동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는 公式的인 실업통계에 나타난 失業이외에 존재하는 잠재실업, 위장실업 및 마찰실업 등의 不完全雇傭이 많으므로 經濟當局에서는 별도로 이러한 規定을 두어서 1주일간에 18시간 노동을 不完全취업으로 간주하고 있다.¹¹⁾

둘째로 일본의 실업률은 모든 기업들이 대체로 증신고용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失業率은 매우 낮은 2~3%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安定된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를 분석 한다는 것은 無理라고 생각 된다.

10) 金潤煥外共著, 『韓國經濟의 分析』, 法文社, 1982年, p. 472.

11) 金潤煥外共著, 前掲書, p. 473.

産 業 研 究

그러면 第10表에 의해서 미국의 通貨量과 失業率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00年부터 1986年까지의 기간 중에 통화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年度는 1914年의 510.5%이지만 이것은 第1次大戰의 첫해이므로 戰時의 특수성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第10表

美國의 通貨量과 失業

年 度	M ₁ 通貨量 單位: bill- ions of dollars	通貨增 加 率 (%)	失 業 率 (%)	年 度	M ₁ 通貨量 單位: bill- ions of dollars	通貨增 加 率 (%)	失 業 率 (%)
1900	1.2		5.0	1922	22.8	10.7	6.7
1901	1.2	0	4.0	1923	22.9	0.4	2.4
1902	1.3	8.3	3.7	1924	24.4	6.6	5.0
1903	1.4	7.7	3.9	1925	26.1	7.0	3.2
1904	1.4	.0	5.4	1926	25.4	△ 2.7	1.8
1905	1.5	7.1	4.3	1927	25.7	1.2	3.3
1906	1.6	6.7	1.7	1928	26.4	2.7	4.2
1907	1.9	18.7	2.8	1929	26.4	0	3.2
1908	1.7	△ 10.5	8.0	1930	24.9	△ 5.7	8.7
1909	1.7	0	5.1	1931	21.9	△ 12.0	15.9
1910	1.7	0	5.9	1932	20.3	△ 7.3	23.6
1911	1.7	0	6.7	1933	19.8	△ 2.5	24.9
1912	1.8	5.9	4.6	1934	22.8	15.1	21.7
1913	1.9	5.6	4.3	1935	27.0	18.4	20.1
1914	11.6	510.5	7.9	1936	30.9	14.4	16.9
1915	13.4	15.5	8.5	1937	29.1	△ 5.8	14.3
1916	15.6	16.4	5.1	1938	31.7	8.9	19.0
1917	18.3	17.3	4.6	1939	36.0	13.6	17.2
1918	20.8	13.7	1.4	1940	41.9	16.4	14.6
1919	23.5	△ 1.7	1.4	1941	48.1	14.8	9.9
1920	23.1	△ 10.8	5.2	1942	62.6	30.1	4.7
1921	20.6	10.7	11.7	1943	79.9	27.6	1.9

通貨と失業の相關關係

年 度	M ₁ 通貨量 單位:bill- ions of dollars	通 貨 增 加 率 (%)	失 業 率 (%)	年 度	M ₁ 通貨量 單位:bill- ions of dollars	通 貨 增 加 率 (%)	失 業 率 (%)
1944	90.7	13.5	1.2	1966	713.7	2.5	3.8
1945	102.4	12.9	1.9	1967	185.1	6.6	3.8
1946	107.6	5.1	3.9	1968	199.4	7.7	3.6
1947	112.2	4.3	3.9	1969	205.8	3.2	3.5
1948	110.7	△ 1.3	3.8	1970	216.6	5.2	4.9
1949	110.1	△ 0.5	5.9	1971	230.8	6.6	5.9
1950	115.3	4.7	5.3	1972	252.0	9.2	5.6
1951	122.0	5.8	3.3	1973	265.9	5.5	4.9
1952	126.4	3.6	3.0	1974	277.5	4.4	5.6
1953	128.2	1.4	2.9	1975	291.1	4.9	8.5
1954	131.8	2.8	5.5	1976	310.4	6.6	7.7
1955	134.6	2.1	4.4	1977	335.3	8.0	7.1
1956	136.5	1.4	4.1	1978	363.0	8.3	6.1
1957	135.5	△ 0.7	4.3	1979	388.7	7.1	5.8
1958	140.8	3.9	6.8	1980	414.2	6.6	7.1
1959	141.5	0.5	5.5	1981	441.1	6.5	7.6
1960	140.4	△ 0.8	5.5	1982	479.9	8.8	9.7
1961	146.5	3.3	6.7	1983	527.1	9.8	9.6
1962	149.2	1.8	5.5	1984	558.5	6.0	9.5
1963	154.7	3.7	5.7	1985	626.6	12.2	7.2
1964	161.9	4.7	5.2	1986 ^P	730.4	16.6	7.0
1965	169.5	4.7	4.5				

資料: 1) Milton Friedmann, Anna Jacobson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 ~ 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704 ~ 722.

2)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7, 1, Table B-31 Table B-64.

3) U. 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p.135.

4) 1900 ~ 1913: 現金通貨

다음으로 通貨가 많이 증가한 年度는 1942 年の 30.1%, 翌년도, 1943 年の 27.6% 順이지만 이것도 역시 第 2 次大戰中の 戰時經濟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약간의 참고로 할 것이다.

좀더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第 11 圖表를 작성하였으며, 이 圖表에 의해서 通貨量의 增加率과 失業의 變化率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分析의 結果를 알 수가 있다.

1. 1900 년부터 1986 년까지 86 年間に 걸친 期間의 전반적인 傾向을 보면 대체로 通貨量의 증가율이 높은 年度에는 失業率이 低下되고, 反對로 通貨량이 減少한 年度에는 失業率이 上昇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通貨量의 變化가 物價에 반영되는 遲差를 약 1 年간이라고¹²⁾ 하더라도 通貨量의 증가율과 失業率의 관계는 대체로 逆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2. 具體적으로 年度別로 分析하여 보면 通貨增加率과 失業率이 相互 逆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年度는 다음과 같다. 즉, 1912 年과 13 年, 1950 年에서 55 年, 1958 年과 62 年, 1964 年과 65 年, 1969 年에서 70 年까지, 1975 年에서 76 年, 1979 年, 1981 年에서 83 年까지의 期間이다. 이것은 1900 年부터 86 年까지 86 年間을 통하여 불과 20 年間뿐이며 나머지 46 年間に 해당하는 期間은 通貨增加率과 失業率의 關係가 명백히 逆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美國經濟에 나타난 과거 86 年間の 實證的 分析은 通貨量이 증가하면 失業率은 減少하고 反對로 通貨量이 감소하면 失業率은 증가한다고 하는 法則을 例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通貨와 失業의 關係에 대한 實證的인 檢證의 結果에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第 12 圖表에서 보는 같이 「필립스」曲線의 變型으로서 失業은 通貨와 의 關係에서 一定한 法則에 의하여 變動한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단순화된 第 12 圖表는 通貨量의 增加率 M_r 의 變化에 따라서 失業率 U_r 은 逆의 函數關係를 가지고 變化한다고 하는 사실이다.¹³⁾

미국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과 失業 및 企業의 破産은 逆關係에 있다는 것이 現實적으로 證明되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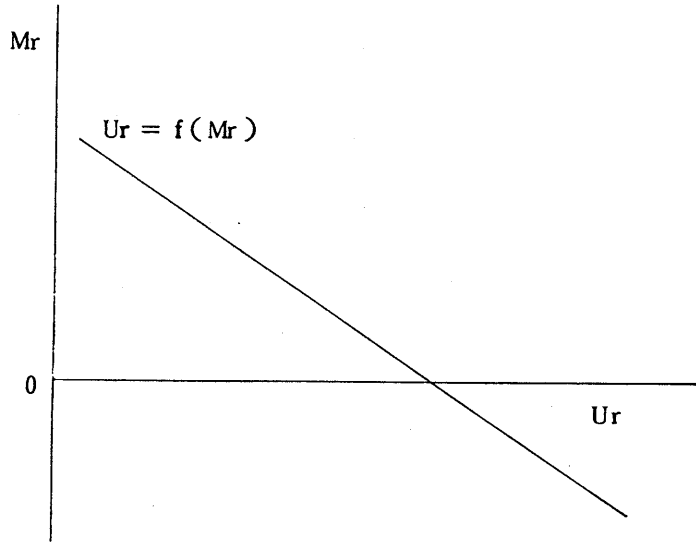
12) 李承潤外共著, 『通貨量決定要因과 金融政策』, 大韓金融團, 1966 年, p. 30.

13) 通貨와 失業의 逆의 關係는 第 12 圖表에서 定立하였으며, 이 曲線을 Lee's Curve 라고 命名하기로 한다.

14) News Week 誌, 1982 年 10 月 25 日字號, pp. 24.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第12圖表



註 : Mr 은 通貨增加率 Ur 은 失業率

「인플레이션」을 貨幣的要因이라고 한다면 이는 通貨의 增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국에 있어서「인플레이션」이 上昇하면 失業率과 企業의 破産이 減少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進行이 完만할 때에는 失業率과 企業의 破産이 增加한다고 하는 사실은 위에서 分析한 通貨와 失業率의 逆關係와 一致되는 것이다.

Ⅳ. 結 論

1929年의 大恐慌을 경험하기 前까지에는 經濟學者들은 失業문제를 重要시 하지 않았다. 이 공황을 계기로 「케인즈」는 失業의 原因을 總需要 < aggregate demand >의 不足이라고 分析하고 總수요와 總공급사이의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不足한 수요의 창조 즉, 有效需要의 창조를 주장 하였다. 換言하면, 일단 完全雇傭을 달성한 社會에서는 總공급이 總수요를 초과 할 때에 失業이 발생하며, 이 失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總수요를 초과된 總공급만큼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產 業 研 究

「필립스」는 失業의 原因을 賃金率 또는 物價와 연관 시켜서 이른바 「필립스」曲線을 가지고 설명 하였다. 즉, 賃金率 또는 物價가 上昇하면 失業은 감소하고, 反對로 賃金率 또는 物價가 下落하면 失業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프리드 만」은 失業을 「인플레이션」과 연관시켜서 「인플레이션」이 高率로 진행 될 때에는 失業은 減少하고 反對로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 될 때에는 失業率이 上昇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本論文은 失業을 通貨와 직접 연관 시켜서 分析하였으며, 이것이 새로운 失業에 대한 理論的 示唆가 되기를 기대한다. 「윗서」는 通貨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分析한 學者中의 한 사람이지만, 그는 通貨와 「인플레이션」의 關係를 定立하여 貨幣와 物價의 交換方程式은 제시 하였으나 失業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通貨增加率이 上昇하면 失業率이 低下되고, 反對로 通貨增加率이 減少하면 失業率이 增加한다고 하는 通貨와 失業의 逆의 關係를 과거 미국의 86년간의 實證的 分析에 의해서 檢證하게 된 것은 새로운 意味를 지닌 結果라고 생각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通貨와 失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의 提示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즉, 美國 한 나라의 例만 가지고 分析하였다는 點과 通貨와 失業의 逆의 關係를 지나치게 단순화 하였다는 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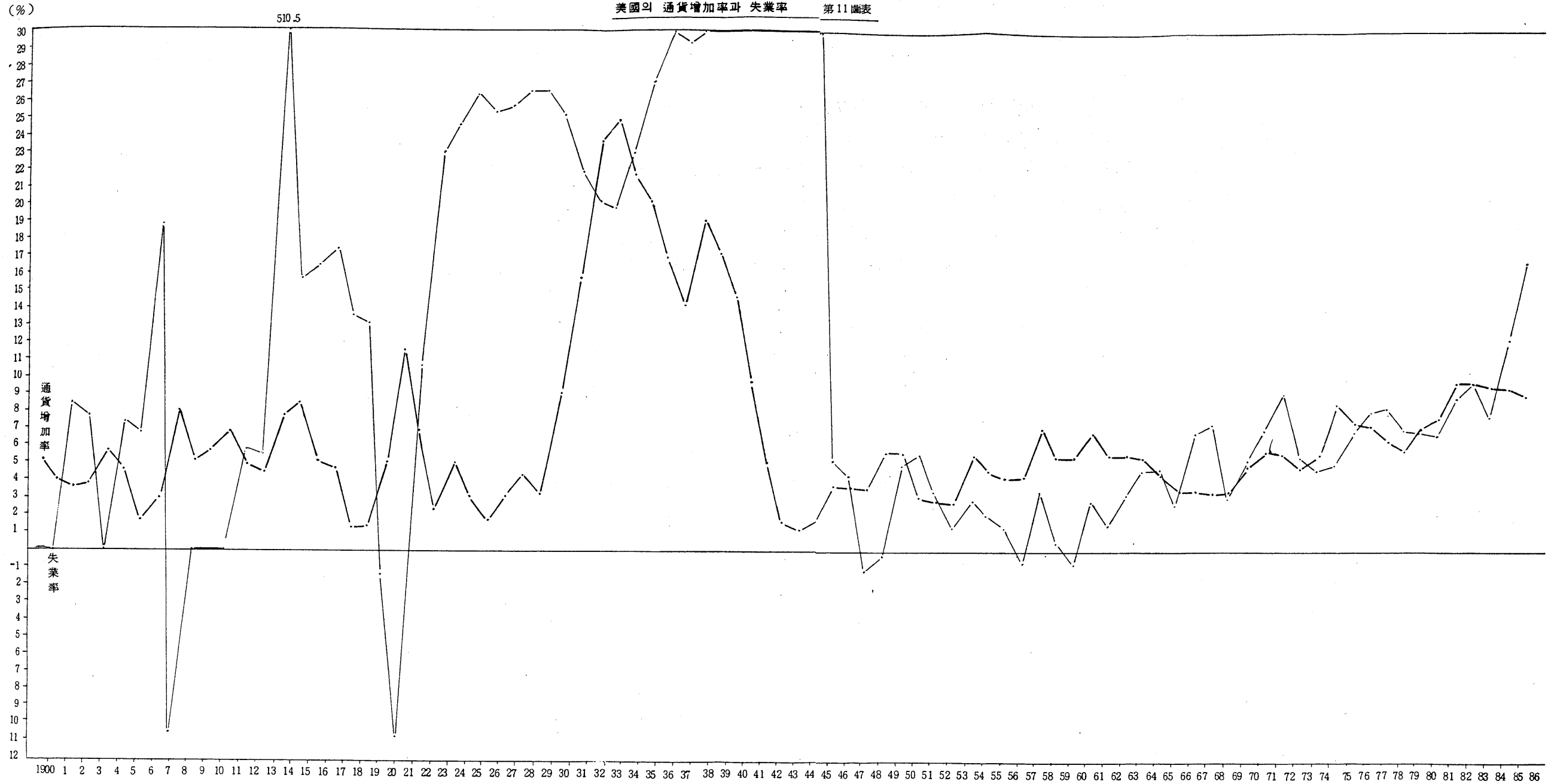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1. 金潤煥外共著, 『韓國經濟의 分析』, 法文社, 1982年.
2. 李承潤外共著, 『通貨量決定要因과 金融政策』, 大韓金融團, 1966年.
3. 朴在潤著, 『貨幣金融論』, 博英社, 1984年.
4. 金秉柱外共著, 『韓國經濟와 金融』, 博英社, 1984年.
5. 兵田宏一外共著, 『金融政策と銀行行動』, 東洋經濟社, 1981年.
6. 菱山泉譯, 『貨幣的分析의 基礎』, ミネルヴァ 書房, 1978年,
Jean Marchal et Jecques Lecaillon, *Theorie des Flux Monetaires*, Editions Cujas, Paris, 1967.

通貨와 失業의 相關關係

7. Keynes, J.M., *A treatise on Money*, MacMillan Press Ltd., 1971.
8. Hansen, A.H., *Monetary theory and Fiscal Policy*, McGraw-Hill Kogakusha, Ltd., 1949.
9. Friedman, Milton, and Schwartz, A.J.,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10. Morgan, Brian, *Monetarists and Keynesians*, The MacMillan Press Ltd., 1978.
11. Johnson, Harry G., *Inflation and the Monetarist Controversy*, 1972.
12. Poole, William, *Money and the Economy*, 1978.
13.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 Co., Ltd., 1936.
14. Fisher, Irving,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MacMillan, 1911.
15. Friedman, Milton, "Inflation and Unemployment," *Occasional Paper No. 51*,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1977.
16. Gordon, Robert J., "The demand and Supply of inf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 18 (December, 1975).
17. Phillips, A.W.,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a*, 1958, Nov.

美國의 通貨增加率과 失業率 第11圖表



資料 : 圖表 9에 의하여 作成 한것임 .

